

HOT ISSUE

핵 쏘모있는 적극행정 2020년 경진대회 우수사례

일깨워라 ! 당신의 적극행정을 향한 열정과 본능 !



최우수상 _ 전라북도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긴급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업종 방역수칙 자율준수 촉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3월 !



전라북도의 신속한 결정으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하여
운영제한시설 1만3천여곳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해당 시설들의 방역사항 준수 및 운영 중단 참여를
유도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수상 _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환경정책 추진 -전국 최초 환경오염우려지역 환경조사

익산시 장점마을 사건 이후,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배출사업장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유해환경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민일보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002면 종합

전북도, 환경 유해요소 선제 차단 '온힘'

음해 주요업종 브라질서 의지 강조
악취·미세먼지·폐기물 집중 관리
정책방향 사후관리보다 예방 중점

전북도 환경보전과가 21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열고 도민이 체감하고 인민에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4대 정책 목표와 17개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올해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인 '악취·미세먼지·폐기물 유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유해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음해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장, 민원반영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환경조사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도 환경분쟁예방TF에 이어 첫 번째 과제가 되고 있다.

환경분쟁예방TF는 익산 장점마을 사태 이후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 행정·부처·주민이 참여한 조직이다. 도 환경보

전과와 환경관리과를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내 대기환경과, 먹는물분석과, 산업폐기물과 등 5개 부서가 머리를 맞댔다.

이번에 추진되는 환경조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상반기에는 시설의 인허가 사항이나 운영현황 등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오염도 검사에 경우 신고물질 뿐 아니라 축정·분쇄기 가능한 정 항목에 대해 검사가 진행된다. 인·허가 사항 외의 추가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함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축정·분쇄기 관련 환경적인 인허가 정비 등을 고려한 민원발생사업장 위주도 상반기에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 문제사업장으로 지정된 하천가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대비 7%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전북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나선다. 도내 미세먼지 주 요인이 되는 생활성연소와 비산먼지,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22.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도는 21일 생활성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서부지방산림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도내 14개

시·군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농업장제출, 농업소취기, 논·밭두렁 소각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친다.

그동안에도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제도 차원에서 그쳤다. 이번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앞으로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해 생활성 연소 저감 홍보지료를 마련해 농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

또 농촌 폐기물 수거·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각 시·군에서는 비산먼지 오염도와 폐기물 발생량, 영농폐기물, 농경지내물 등 유형별로 일제 수거·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불법 행위 지도·단속 역시 과파 이행과 과파 시 제재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분에 나선다.

강인태 도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유해요소 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조사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유해환경을 개선해 도민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환경조사 외에도 유해환경인지 제고를 위한 모든 대응책을 고민해 검토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1조 3173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019년 대비 55% 이상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진호/지

민원 발생 후 해결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환경정책으로 전환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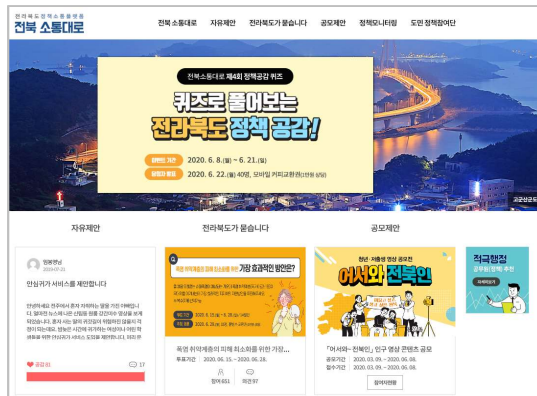
신속한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인허가 모델을 전면 전환하는 한편

오염도 검사 확대,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청정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수상 _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소통대로 운영으로 정책공감 및 소통 강화



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 누구나 쉽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정 및 사회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벤트로 도정 관심층을 확보하고
제안이 정책화가 되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많은 도민이 즐겨찾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작년 5월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자수가 증가하고 도민과 함께 설계하는
정책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우수상 _ 김제시

온라인 학습지원 & 청년 일자리로 일석이조. 청년 일자리연계 초등학생 온라인학습 도우미 지원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처음 도입하는 원격수업 시행에 앞서,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정보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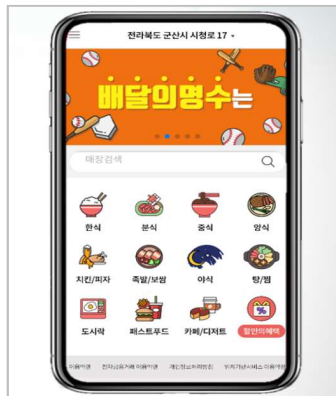
또한,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습 지원을, 지역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수상 _ 군산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win-win)하는 상생어플 배달의 명수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 상생어플
배달의 명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자립형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수상 _ 정읍시

수년 묵은 인도점유 고질민원 해결



도로(인도) 내에 상가 물품이 수년간 방치되어 보행자의 인도 통행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질 민원을 포기하지 않고 담당자의 노력으로 계도하여 해결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도시 미관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